

효정신 시방세계 두루 밝힌다

효행분할 화성 용주사가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를 연다. 용주사(주지 정락는 화성시와 9월 20일 경내에서 제 1회 효행 승무백수제를 봉행한다. 이번 효행 승무제는 용주사가 정조의 효심으로 건립되고,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가 용주사에서 씌어진 것을 기념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사도세자 천도의식을 비롯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 8호 김복련씨의 '화성재인정류 승무공연'과 성우 장진진씨 '시낭송'으로 진행된다. 이어 효행 백수제(점심공양)는 조선 시대 정조가 화성행차시 어머니인 혜경궁의 회갑잔치를 열고, 선비와 무

사, 노인, 결혼가정 어린이들에게 소금과 쌀을 나눠줬다는 기록을 토대로 불자연연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용주사 본말사를 비롯 화성시 지역 99세 이상노인 16명을 초청, 약단 오노름의 연주와 국악인 김성녀

했다"며 "앞으로 효 축제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232-5347. 한편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화성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창건된 사찰로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됐다. 조선 제 22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으로 옮기면서, 보경스님(가치산 보림사 승려)에게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 용주사를 지어 원찰로 삼았다.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을 설립, 운영을 통해 효행교육으로 불교신행관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용주사, 1회 효행 승무, 백수제 봉행 노인1천명 초청 점심공양, 선물제공

백수연을 열 예정. 또 85세이상 노인 1천명을 초대, 점심공양과 선물, 노잣돈을 제공한다. 용주사는 제 1회 효행 승무·백수제 개최를 기념하여 산사음악회도 연

밥 짓는 시간 정진의 연속

가마솥에 밥하는 보살 자광화보살



◇부산선암사 자광화보살은 하루 1만여명의 밥을 가마솥으로 지어 대중들에게 공양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하루 1만여명 밥 지으며 공부 점검

"부처님 찾는사람 배 불리니 기쁘고 감사"

하루 1만여 명의 밥을 가마솥으로 짓는 보살, 그 일을 7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있는 '밥하는 보살'이 있다. 신라 문무왕 15년에 창건되어 130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천년고찰 부산 선암사 후원에는 가마솥이 세 개가 나란히 걸린 아궁이가 있다. 이 아궁이와 가마솥 앞에서 선암사에서 '가마솥책임자'로 통하는 자광화보살(44) 보살을 만났다. 한 솥에 100~150인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가마솥은 자광화보살이 선암사에 처음 왔던 7년 전부터 자광화보살의 돌도 없는 도반이었다. "밥을 지어 대중에게 공양 올리는 복을 지으며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스님의 권유로 밥짓는 일을 시작한 후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며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해왔다. 초파일이나 백중, 초하루, 보름 등 규모가 큰 법회 때면 새벽 3시 30분에 절에 도착해 쌀을 씻고, 나무를 데치고 밥을 앉혔다. 세 개의 가마솥에 차례대로 밥을 앉히고

불을 조절하면서 밥이 다 된 솥에서 밥을 퍼내고 다시 밥을 짓는 과정이 오후 7시까지 계속된다. 만 명의 밥을 천구이자 도반인 김순임보살과 단 둘이서 도맡아 오다가 최근엔 혼자서 하고 있다. 아궁이에서 날아오는 솥검정으로 옷과 몸에서 검정 물이 뿜어져 나오니 조금만 불 조절을 잘못해도 밥이 타거나 설이끼 마는 어려운 일이라서 선택해 보겠다고 나서는 후임자가 없다. 어머니는 왜 반복 일고 안내하는 품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부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일체중생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자광화보살은 눈물을 보였다. 자광화 보살의 간절함과 진심함이 있어 만중생의 배를 불리는 선암사 가마솥 밥 맛이 아닐까? 천미희 기자



추천의 말 정야스님 선암사 주지

상을 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대중 공양 소임을 맡아 7년 동안 단 한번도 밥을 태운 적이 없는 것이 자광화 보살님. 선암사 불교교

드러내지 않는 보살행 실천

양태학 2기 출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는 분입니다. 자광화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나와 기도하고 참선을 하며 공부합니다. 자광화 보살의 드러내지 않는 노고가 있어 선암사에 오시면 가마솥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 당하는 시대 오지않길...

미군에 학살된 화순탄광 노동자 천도제

1946년 미군정에 의해 학살된 화순탄광 노동자 천도제가 13일 학살지인 화순 너릿재 정사에서 봉행됐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대표 행법스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천도제에는 신광사 경주 스님, 동원사 지각 스님, 만년사 정과 스님, 신흥사 법일 스님, 이제동 회생자 대표, 박종섭 화순농민회장, 이윤정 광주전남통일연대대표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회생

노동자의 넋을 달았다. 행법스님은 추도사에서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모두가 사회의 파수꾼이 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자"고 말했다. 화순탄광 노동자 학살 사건은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던 탄광 노동자 3천여 명을 미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7~8명이 미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이후 11월에도 화순군 동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의 화순탄광노동자천도제모습. 먼 구암리에서 미군 차량행렬이 4백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집단발포 해 10여 명이 사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제7회 무안 백련대축제 성료 차 시음 등 체험마당으로 진행



제7회 무안 백련대축제(사진)가 14~17일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열렸다. '순백의 연꽃, 화합의 대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백련대축제는 국악 공연과 마당놀이, 오케스트라 공연, 육법공양 및 차 시음회 등 볼거리 행사와 노래자랑, 팔씨름대회 등 다양한 체험마당으로 진행됐다.

한편 14일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화암사 주지 명섭 스님, 백양사 주지 두백스님, 대흥사 주지 몽산스님, 무안사암연합회장

정평스님 등 5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오락약세에 몰리지 않는 연꽃이 만발한 무안에서 순수의 연꽃을 통해 사랑과 자비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자"고 당부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나 지구 법당구역 단정 어렵다"

조사결과 불교유물 발견 안돼

사찰과 숙박시설을 겸한 고령 행궁으로 밝혀진 경기 파주시 용미 4리 혜음원지의 3차 조사결과 나 지구에서 가람배치 건물지와 불교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부터 혜음원지를 연차 발굴 중인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단(단장 박경식, 사학과 교수)은 11일 현장에서 제 3차 조사 설명회를 갖고 '법당 구역인지 불원의 일부인지 나 지구 건물지는 성격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차 조사결과 가 지구에서 이미 행궁(별원의 유물과 건물지가 이미 출토된 만큼 나 지구는 법당일 가능성을 높게 갖고 있었다.

발굴조사단 박경식 단장은 "민묘와 농업용 창고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건물

지의 성격 문제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혜음사신장기>에 의하면 혜음원에는 장건 당시부터 법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또 <삼국사기> 편찬책임자인 김부식이 남긴 글에도 '혜음원에는 별궁 외에 사찰도 포함돼있다'고 적혀있다. 김원우기자

파주 보광사 NGO 연수시설 개방

파주 보광사(주지 일문)가 기존 법파나 수련회뿐만 아니라 NGO 연수시설로 문을 개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보광사는 60여평 규모의 목조양식 콘트리트 건물인 설법전을 NGO 연수시설로 개방했다. 5개의 방과 강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강당을 갖추고 있는 이 건물은 30~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내부에는 5개의 방과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일문스님은 "실천불교 근본도량인 보광사를 NGO 단체들에게 개방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문을 개방하게 됐다"며 "불교계 NGO 뿐만 아니라 일반 NGO 단체들의 연수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1)948-7700 남동우기자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회대 오가피 제작자 성광수

-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 스포츠 키테이 2003 컷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름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붙어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사에 국내최대오가피재매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애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매자 성광수씨가 재매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5-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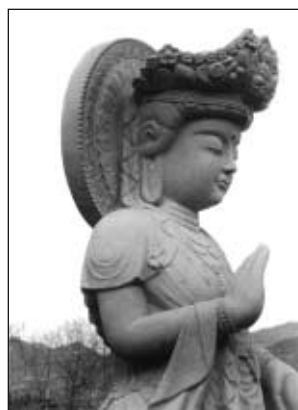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